

## June 12 온유, 주님께 길들여지기

• 민수기 12:1-3; 시편 37:7-11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지만, 논점은 곧 모세의 지도력으로 옮겨 갔습니다. 모세가 두 사람의 비방에 대해 반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 보다 더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오템스’ 역시 사나운 들풀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길들여진다는 말에는 오랜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의에 대해 눈감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 온유해야 할까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롬 12:19).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기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출 2:11-12).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통하며 어느새 하나님을닮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방은 모세를 향했지만, 그 비방을 듣고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민 12:10). 모세는 화를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리암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민 12:13).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경건의(Godly)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닮아 가며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응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마 5:5).

---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❶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❷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